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맞으며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 2018.11.11.(나해) 제2132호

발행인 | 조환길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편집 | 문화홍보국 인쇄 | 대건인쇄출판사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전화 | (053)250-3048~9
홈페이지 | www.daegujobo.or.kr 이메일 | jubo@dgca.or.kr 등록 | 2017. 11. 13 대구 다04660



정미연 소화테레사 作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마르 12,43)

지사랑



어느 조그마한 음식점에서 일손이 부족하여 도우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구하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었습니다. A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일을 하였지만, 그 외의 일은 본인의 일이 아니라 생각하여 그냥 시간을 보내는 유형입니다. B는 시간과 하는 일은 A와 같았지만 손님이 없을 때, 식당 내부의 눈에 거슬리는 것과 주방의 일도 도우미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곤 하였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에게 임금은 똑같이 주지만 둘 중 어떤 사람이 가게에 남아서 자기 일을 도와주기를 원하겠습니까? 혹 다른 사람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누구를 보내고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겠습니까? 요즘 시대

에 B와 같은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자기에게 향하는 사랑을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세상을 살면서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는 헤어졌을 때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떠난 것에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경우는 떠난 사람의 모습, 인성, 배려 등 타인에 대한 생각이 많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타인에게 불편함만 주었기에 떠남이 고맙게 느껴지리라 생각됩니다. 결국 내 모습 속에 내가 사랑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개인주의 등 자기중심적인 세상이 되다보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율법학자를 두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그 모습이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타인을 인정해 주어야 나 자신도 인정 받는 모습이 될 터인데, '나만을 위해', '내 것을 위해'라는 식의 모습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터인데 말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성가 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힘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한번 살아봅시다. **궤문**



한재상 요한 신부 | 두류분당 주임

희년의 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합시다!

교우 여러분,

오늘은 제51차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세상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평신도들이 평신도의 신원과 사명을 되새기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지난해 평신도 주일에는 ‘한국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평협) 설립 50주년을 맞아 ‘한국 평신도의 희년’이 선포되었고, 이제 ‘희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평신도 희년 정신을 실천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다짐하였고, 매주 교구 주보에 실렸던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금주 실천 사항을 해내려고 노력한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평범하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매주 바뀌는 금주 실천 사항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하였습니다. 작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실천하려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우리 공동체를 희년 정신으로 가득 채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신앙인답게 하나님 사랑을 일상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한편, 우리는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맞이해서 묵주기도를 하면서 ‘교구의 쇄신과 발전’, ‘성소자 발굴과 사제양성’, ‘사랑과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 본당과 가정’이라는 새로운 원의를 초기 교구의 절박한 심정으로 해 왔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서약과 새로운 희망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은 봉헌 100주년이 지났지만 계속 되어야합니다. 초기 교구의 드망즈 주교의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독서와 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믿음과 희망,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독서의 말씀을 되새기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복음 말씀은 사랑의 주님께 참다운 믿음과 희망을 두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한지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바쳤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라고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을 오롯이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으며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희년을 마무리하면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약과 새로운 희망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러한 다짐의 마음을 담아 평신도 희년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선포하면서 외친 구호를 다시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2018년 11월 11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평신도위원회

최저 임금제, 어떻게 볼 것인가 I

박용욱 미카엘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1. 바실리오 주교, 무고를 당하다

역사상 최초의 사회복지시설이자 병원이 서기 372년 로마제국의 무역항 체사레아에 건설됩니다. 바실레이아스라고 불리는 이 시설을 건립한 이는 위대한 교부이며 교회 행정가였던 성 바실리오 주교였습니다. 바실리오는 여기서 의사, 간호사, 수도자들과 함께 병든 이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이들을 보호하며 질병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이는 박해를 벗어난 교회가 로마 제국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낸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는 곳에는 이권과 재정 투입을 놓고 각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바실리오 주교도 체사레아 지사의 측근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대규모 복합 빈민보호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재정 낭비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큰 영향을 끼쳤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법학자 울피아누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실리오 주교를 고발한 이들이 보기에는, 국가의 부를 이루는데 별로 기여한 것도 없고 앞으로도 기여하기 힘든 이들에게 돈을 쓰는 일은 정의에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실리오 주교는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떠돌이와 병자를 돌보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올바른 인간으로 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의 정치가와 행정가들은 그런 일이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 정의와 효율, 그리고 하느님 앞에 올바른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분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4세기의 로마뿐만 아니라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라는 제도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들은 기본적으로 정의와 효율성을 둘러싼 싸움으로 볼 수 있겠지요. 각자의 몫을 어떻게 나누어야 정의로운가, 또 어떻게 정의를 실현해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나뉘는 형국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장 정의롭고 효율적인 방법은 자유로운 경쟁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국가가 개입해야만 불공정한 경쟁을 막고 균형 있게 효율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더해 효율성을 추구하다가 놓치게 되는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를 사회교리의 시각에서 다룬다는 것은 정의와 효율성 사이에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하느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최저 임금 문제가 그저 정의 문제만도 아니고, 효율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며, 그리스도교 윤리의 문제까지 겹쳐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회에는 이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점검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회에 계속) **▶▶▶**

자유를 주소서

주 예수님
 당신은 진정 자유로운 인간이셨습니다.
 벼를 사랑하여
 당신 생명을 내어주셨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하셨습니다.
 당신께 기도 드리오니
 마음의 자유를 주소서.

이것과 저것을 선택하는
 외적인 자유가 아니라
 희생과 숨겨진 봉헌으로 이루어진
 가장 심오한 자유를 주소서.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자유를 주소서.

사랑의 자유를 지니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면
 봉헌의 삶을 통해
 다가오는 왕국의 새벽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당신 친히 마련하신
 새로운 자유의 잔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알렐루야!

브루노 포르테 (Bruno Forte 1949~)
 이탈리아 키에타-바스토 대교구 교구장 대주교, 신학자



폭력

스승은 항상 가르치기를, 죄는 바로 죄의 덩어리인 악마처럼
 피해야할 사악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죄를 미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네가 죄가 있을 때 네가 미워하는 것은 네 죄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다.”

제 1 독서 1열왕 17,10-16 제 2 독서 히브 9,24-28 복 음 마르 12,38-44

화 답 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교구장 동정

- 11. 4(일) _ 평화성당 60주년 감사미사 및 견진성사
- 11. 6(화) _ 2018년 사제총회
- 11. 7(수) _ 가톨릭 학술상 시상식
- 11. 8(목) _ 주교 현장체험
- 11.10(토) _ 평신도 회년 폐막미사, 전국 청년성서모임 연수



총대리 동정

- 11. 4(일) _ 내당성당 견진성사
- 11. 6(화) _ 2018년 사제총회
- 11. 7(수) ~ 11(일) _ 로마 방문 (성체대회 준비모임)

「빛」 잡지 표지 '양병주 분도의 묵상사진'

2019년 탁상용 신앙 북캘린더 출시

교구 문화홍보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19년도 탁상용 신앙 북캘린더를 출시합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탁상용 신앙 북캘린더는 「빛」 잡지 표지를 연재해 온 사진작가 양병주 분도님의 묵상사진 작품을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사이즈와 거치대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더욱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 격 : 8,000원 (예약기간 내에 선주문하시면 1,000원 할인)

예약기간 : 10.29(월) ~ 11.18(일)

예약 및 문의 :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6~8

※ 택배비는 별도이나 50권 이상 주문하실 경우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복음 말씀을 매일 읽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미사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2일(월) 10:30 범어성당	수능기원미사	11월 13일(화) 11:00 성모당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1월 12일(월) 11:00 황성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1월 13일(화) 11:30 계산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2일(월) 11:00 신평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1월 14일(수)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월 12일(월) 11:00 죽도성당	대구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1월 14일(수) 19:00 벌관4회합실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2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월 15일(목)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1월 12일(월) 19:00 포항성모병원	미마회 월례미사	11월 17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효령하늘집 개인 피정(각 선착순 10명)

산내 피정: 11.20(화)~21(수)

시니어 피정: 11.27(화)~28(수)

문의: (054)382-0091

연중 개인 피정 가능합니다.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전례 피정

일시: 12.23(일) 16:30~25(화) 13:30

장소: 성베네딕도 왜관피정의집

참가비: 19만원 / 대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신청: (054)971-0722

성심교육관 2박 3일 무료 찬양 치유 피정

일시: 11.16(금) 22:00~18(일) 15:00

장소: 성심교육관 / 문의: (031)262-7600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교육 | 모집 | 기타

선교교육의 날(매달 둘째주 월)

일시: 11.12(월) 11:00~14:00

장소: 제1대리구청 강당

지도: 이창수(야고보) 신부

대상: 선교위원, 선교에 관심있는 분

문의: 선교센터(가두선교단), 781-6100

프란치스카눔 교육생 모집

발성법, 문인화, 유희, 수채화

반주수업: 기초반_평일미사 반주

취미반_가요, 생활성가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성당 인근)

문의: (070)4266-0047

생활성가밴드 DEUS 멤버 모집

파트: 드럼, 남자보컬, 일렉기타

연습실: 수성구청역 인근

문의: (010)2989-5864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원서접수: 11.12(월)~2019.2.13(수)

과목: 성서, 교의, 전례 등 26과목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돈보스코영양대안학교 신입생 모집

100% 대학진학률, 기숙형학교

단편영상제작 / 팟캐스트 / 검정고시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3동

대상: 학교 밖 청소년(중·고등학생)

문의: (02)833-0930

미국 가톨릭사립학교 1월 정규입학 모집

기간: 단기(1년), 장기(1년 이상)

대상: 초5~중3

주최: 그리스도의리제리오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 문의: (02)2258-8983

http://oakinternational.co.kr

제53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2019.1.5~2.9(3, 5주 선택)

대·일반: 2019.1.5~2.17(6주, 장기 선택)

아일랜드·세계 학생들과 함께 수업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3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지도: 송진욱 신부 / 주관: 가고시마교구

문의: (010)3645-9028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치매, 중풍 어르신 요양원입니다.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2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신홍식(루가)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최추·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진전, 오통
좌골신경통, 목, 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결혼」리스토리

www.LeeStory.kr

안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외 다수출연
20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산나
010.6571.3385 | 053.586.3220

성서 계대 동문 맞은편 국내-대구 담서 0003호
국제-대구 담서 0002호

유러피안 스타일 캐주얼 레스토랑

moomoo

스테이크(한우)파스타·화면피자·샐러드바

대구시 수성구 용화로 13(수성동)
예약문의 762 7555 | 김경희(스테파니아)

SINCE 1985 안지랑 국민은행 3층

성가정결혼

권종문(파비올라)

053)474-0025
010-3818-0818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를 김기산(안드레아)
(전 통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4~5
www.kisaneye.co.kr

문영혜 성명외과

- 서울대학교 병원 협력병원
- 서울의대 성형외과 전문의 2명 진료
(원장 윤용현 바로로, 박성규)

수성구 어린이회관 맞은 편, 신축이전
(3호선 어린이회관 역)

T. 053)766-2454 / 2455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호성(아오스님)
의학박사 전문의 조영수(다미아노)
전문의를 이수윤(소피아), 홍정훈(대견안드레아)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3 (구)달성군청자리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권영조(마르코) 신부
1965년 11월 16일
- 남대영(루도비코) 신부
1972년 11월 17일

행사 | 모임

11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1.18(일) 14:00
대상: 중1~대학·일반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구룡공소 신앙유적지 축복미사

대구 경북 첫 신자들의 신앙터 구룡공소
일시: 11.17(토) 11:00
장소: 구룡공소(대주교님 주례)
문의: (010)5231-6511

11월 함께 꿈 미사와 토크 콘서트

일시: 11.16(금) 19:00
장소: 교구청 내 카페카리타스 2층
진행: 박병규(요한보스코) 신부
대담: 표경흠 선생
문의: 대구정의평화위원회, 250-3163

몽골어린이돕기 사랑나눔 콘서트

일시: 11.25(일) 16:00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드망즈홀
출연: 가톨릭음악인협회, 사제밴드 외
주최: 대구가톨릭평화방송, 불려티어회
예매: 티켓링크 / 문의: 251-2631(2만원)

제18차 영남지역 CPE 가을 세미나

일시: 11.17(토) 9:30~16:00 / 3만원
장소: 대신학원 대강당 / 마감: 11.10(토)
주제: 관계 안에서의 갈등이해와 돌봄
주최: 대구대교구·성바오로CPE센터
문의: 659-3410 / (010)4143-5508

교육 | 모집

11월 가나 강좌

일시: 11.18(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원(당일 신청) 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제5기 해외봉사단 모집

일시: 2019.2.7(목)~15(금) 8박 9일
장소: 필리핀(사랑의 선교회)
회비: 80만원(선착순 25명)
문의: 교구 청년국, 422-6692
<http://dcy.co.kr>

대건교 2019학년도 입학설명회

인성등업, 학력등업, 대건등업
일시: 11.24(토) 14:00
장소: 본교 안드레아관

문의: 입학홍보부, 235-4560

시편 성가 연수

일시: 11.11(일) 15:00
지도: 김정선 수녀 / 회비: 1만원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채용 | 안내

교구청 기사실 경력직원 채용

업무: 시설관리직(보일러, 전기, 가스, 설비, 조경 등) / 마감: 11.16(금) 15:00
자격: 45세 이상 경력자(자격증 우대)
서류: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서본
제출: 교구청 관리과, 250-3031

대구SOS어린이마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마을어머니 지원자 채용
자격: 미혼 여성
문의: 983-3154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오미선(아녜스)
문의: 253-9550

◎ 2019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

- 후보광고접수: 11.22(목), 대건관 2층 가정복음화국 회의실
- ※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광고접수일부턴 익일까지)

광고접수시간 예고 | 광고접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문화홍보국에서 사전에 진행한 순번추첨결과와 예상접수시간을 광고주들에게 미리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7~8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얇이 얇을 이긴다!
청도 윤성요양병원
암 수술 후 재활·통증 치료 전문
면역치료 14년 054)373-7400
보건의료부 인증병원 010.4505.6355

한투어
성지순례전문
터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성지순례 모객중
☎ 053-427-7090
안상덕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19년 전통의
가톨릭성지순례전문
성모성지 -파티마,루르드,바뇌,메주고리에-
이스라엘,터키,그리스,발칸,홍유립,서유럽
<http://www.sungmotour.com>
기도하는성지순례관 JMJ성모여행사
Tel 02)538-4581 | Fax 02)539-4589
황세정 실비아 010-8568-9436

박익현 구심내과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원장 박 의 현(안드레아)
☎053)252-1785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철, 척추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영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유천치안센터 옆 T. 425-5919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53-751-5961
010-3530-7700
위령회 총무 양호진 요셉

암 · 재활 · 소화기 · 통증 · 건강검진
Happy! 갯마을병원
의사와 환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입구 [대림리] 053)670-6000